

김원자(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SNS 연구회장 이사)



희소성vs 사용성의 가치

한 대학의 강연회장에서 교수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보이며 물었다. “이 세상에 만약 스마트 휴대폰이 딱 한개 있다면 그 가치는 어떨겠는가?” 순간적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떠오르고 “가치가 커질 것이다”고 답했다면 그는 정보화 사회를 아직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 역시 전후세대이긴 하지만 70년대 에너지 파동이라든지 물자가 부족하던 산업시대의 뿌리가 남아서인지 아직도 물건=소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건을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세상에 단 하나있는 물건은 명품이거나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커야하고, 실제로 작고 해버린 유명화가들의 작품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보면 그것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 독점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디지털기술의 무한복제성은 물건의 가치를 소유가 아닌 사용에 둔다. 하이테크마케팅에서 무료 폰의 남발, 디지털기기의 가격인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사용하는 사람의 수의 크기에 비례하여 가격은 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산업시대의 마케팅이론이 무력해지고 시장에서는 혁명이 진행 중이다. 현대 사회에서 부의 창출은 토지도 노동력도 자본도 아닌 바

로 정보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정보는 사람이 독점하고 축적해 놓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고 사용되어야 가치가 생긴다.

네트워크하면 다단계사업이 연상되어 말하기조차 거북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네트워크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용은 사람들이 더욱 빠르고 손쉽게 온라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네트워크의 즉시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가 이러한 무선 인터넷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다.

누구나 갖추게 될 1인 미디어

페이스북은 전 세계 인구의 10%인 6억 명 가까이가 가입했으며, 트위터도 1억 명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주로 18~44세의 연령층이 많이 이용하며, 서비스 기업이 있는 미국보다도 글로벌 사용자 비중이 더 높다. 페이스북은 41%의 사용자가, 트위터는 27%의 사용자가 매일 로그인하며, 매일 자신의 상태를 올리는 사람이 페이스북은 12%, 트위터는 52%이며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30%, 3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통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시장이 생기듯이 소셜비즈니스도 뒤를 이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 대부분은 반복적인 일상에서 재미없게 살아가면서 나와 같은 생각하는



정보화시대, 1인 미디어시대에 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을 찾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재발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트윗이나 페이스북 현상이다. 그동안 권위적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질릴 대로 질려온 20~30대 젊은 층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여론을 움직이기도 하는 소셜 지성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 홈페이지는 개인의 브랜드화, '1인 미디어'란 용어를 만들었다. 페이스북 유저는 개인의 공간에 자신이 보고 들은 일들을 글로 쓸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받은 다른 유저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정보를 다른 유저들에게 전파하기도 한다.

네트워크 안에서 유저는 한 개인을 뛰어넘어 정보를 창조하고 전파할 능력을 갖춘 하나의 미디어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1인 미디어'는 무선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기존의 미디어를 뛰어넘는 즉시성과 정보 확산 능력을 갖추으로써 미디어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익을 얻는 새 직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애플코디네이터란 직업

강진영씨는 스스로 창직했다고 말하는 국내 애플코디네이터 1호다. 2011년 3월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서울 지하철 약수역에서 동호대교로 넘어가는 금호터널 못 미쳐, 신당동 길 왼쪽에 진남포면옥이라는 북한식은면과 만두국을 파는 집이 있다. 내가 소셜 웹전문가그룹 유영진대표를 만난 집이다. 3월이면 호남대평생교육원의 상반기프로그램도 거의 세팅이 되고 새로운 강좌를 계획하는 것도 어정쩡한 때. 나는 서울에 온 김에 이번엔 꼭 SNS계의 그루라 칭하는 그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랫동안 올드미디어에 종사한 나는 SNS 야말로 새롭게 변화가 일고 있는 미디어광장에서 태풍의 눈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걸 감지했다. “광주에 와서 특강을 해 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는 나에게 유영진님은 흔쾌히 수락을 했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청중을 모으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아마도 그 때 생각으로는 호남대 평생교육원 직원들끼리 만이라도 조출하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다.

한 시간 쯤 지나 이야기가 무르익을 쯤 강진영씨가 헐레벌떡 나타났다. 어디서 강의를 마치고 늦은 점심을 위해 합류한 것인데 강진영씨의 명함을 보고 그 때 나는 솔직히 쇼크를 먹었다. 대한민국 애플코디네이터 1호. “아니 이런 직업이 어디에 있었지?” 듣도 보도 못한 애플코디네이터란 직업을 그는 명함에 당당하게 박고서 그것도 대한민국 1호라고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주

장하지 않은가. 어지간한 커리어에 주눅 들지 않는 나에게 강진영씨는 정보화시대를 사는 새로운 세대의 선두주자였고 변화의 물결을 리드하는 똑똑한 젊은이었다.

똑똑한 폰이 만들어내는 반 똑똑이들

2009년 애플의 스마트폰 등장 이후,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길다면 긴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애플은 국내 소비자에게는 불친절하며, 안드로이드 폰들 역시 컴퓨터만큼 어렵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이 넘어서면서 국내에도 내손안의 세상이 열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앱들을 통해 입맛대로 세상과 연결하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스마트폰은 여전히 어렵고, 앱의 세계를 다 탐닉하기는 복잡하기만 하다.

솔직히 프랑스에 파리에 여행을 갔던 지난달, 내 스마트폰은 카메라로서의 기능 외에 별로 한 일이 없다. 멋진 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잘 안되는 그곳에서 혹시 요금폭탄에 맞지 않을까, 어설프게 들고 다니다가 누가 채가지나 않을까 사진만 찍고 얼른 바지호주머니 속에 꼭꼭 집어넣었던 것이다. 분명히 여행 중 유용한 어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은 결

코 나를 스마트하게 해주지 못하고 말았다.

과연 사용자 2천만 명중 진짜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스마트폰은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어떤 소비자는 게임기로, 어떤 소비자에게는 무료 SMS로, 또 어떤 소비자에게는 화면 큰 피쳐 폰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나는 똑똑한 폰이 만들어낸 반 똑똑이들 면하기 위해서도 SNS교육이 대중화되어야 하며, 디지털기기의 가치는 소유가 아닌 사용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법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고 본다. 원래는 기기를 판 사람이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 스마트폰 판매자들은 그들 대부분 반 똑똑이들이다. 오죽하면 앱 코디네이터란 직업이 새로 생겨났을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직업과 다른 생활패턴이 있으며 다른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당연히 그들의 스마트폰 첫 화면은 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직장에 가고 저녁에 잠이 드는 시간까지, 스마트하게 주인을 관리해주는 그런 폰...

SNS혁명은 시작되었고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다. 이곳저곳에 많은 거품논란이 있지만 단순히 스마트 폰만 스마트하게 세팅하는 수준이 아닌, 진정한 스마트워킹의 단계로 한 단계씩 성숙해가길 기대한다.